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 에너지 빈곤층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 나서

2022. 12. 1.

2022. 12. 1.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 임직원들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CFS 임직원 등 40여 명은 지난 11월 29일 연탄은행과 함께 서울 성북구 성북동 북정마을에 연탄을 나르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CFS는 연탄은행에 연탄 3,000장 및 쌀 800kg을 후원하고, 이날 연탄 3,000장과 쌀 140kg을 북정마을 연탄사용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이날 전달하고 남은 쌀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연탄사용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연탄 구입과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돕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는 모두 CFS 소속으로 취지에 공감하는 임직원들이 자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더 큰 보람을 느꼈다”며 “전달 드린 연탄과 쌀로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김순예 사무총장은 “경제불황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연탄사용가구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CFS 임직원분들 덕에 어르신들의 겨울이 더욱 따뜻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FS 관계자는 “물류센터 별로 각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봉사에 꾸준히 동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진정성 있는 나눔과 상생의 가치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CFS는 지난 11일에도 서울 종로구 창경궁 관람로 주변을 청소하고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문화재청과 함께 창경궁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던 이날 행사에는 CFS 임직원 40명이 참여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